

# 風水說 坐向論上の 吉凶判斷에 관한 緯學的 解釋

崔 昌 祚\*

## 《目 次》

- |                   |                           |
|-------------------|---------------------------|
| 1. 問題의 提起         | 3. 坐向方位의 構造               |
| 2. 坐向論의 風水地理說上 位置 | (1) 易과 方位                 |
| (1) 風水說의 構造       | (2) 羅經과 二十四方位             |
| (2) 看龍法           | (3) 陰陽·五行·干支 및 節氣와 二十四 方位 |
| (3) 藏風法           | 4. 坐向의 吉凶判斷과 그 解釋         |
| (4) 得水法           | (1) 坐向吉凶解釋의 基本原理          |
| (5) 定穴法           | (2) 山水方位의 吉凶解釋            |
| (6) 形局論           | 5. 結 論                    |
| (7) 坐向論           |                           |

## 1. 問題의 提起

韓國의 傳統的인 地理思想으로서의 風水地理說 접근은 地理學에 있어서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風水說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보면, 첫째 迷信으로 규정지어진 術法의 입장에서의 追孝, 發蔭을 주된 목적으로 한 術師部類의 接近, 둘째 歷史學에서 주로 羅末麗初와 高麗時代 및 麗末鮮初의 정치, 사회상을 그로서 解釋하고자 하는 接近, 셋째, 東洋哲學 내지는 思想史 분야에서 易을 근본으로 陰陽五行, 理氣, 干支 등을 분석하여 風水說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接近, 넷째, 建築學 및 環境學 분야에서 空間構成의 形態的, 傳統建築思想的, 景觀認識의 측면에서 그의 合理性을 도출코자 하는 接近, 다섯째, 民俗學 분야에서 風水, 圖識, 샤머니즘, 新興宗教 등이 未分化된 상태에서 현황조사와 그 해석을 시도한 接近, 그리고 끝으로 地理學에서 그의 合理性이나 立地論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한 接近 등이 있다.

각 분야의 해석 입장은 本考 해당 項目에서

인용할 것이지만, 대체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대응이 상반하는 듯하다. 風水地理說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新羅末 高麗初, 즉 風水說의 本質이 윤색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고, 高麗末 朝鮮時代에 있어서는 부정적 평가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朝鮮朝에 이르러 風水는 陰宅 위주의 민간신앙화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그 폐해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였다. 葬墓로 인하여 求福이 가능하다고 널리 믿게 되자 자손의 번식, 명예, 부, 지위획득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陪葬, 偷葬, 勒葬, 분묘발굴, 시체도둑, 도굴은 물론이고 移葬의 성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막중한 것이 되었다.

이에 유학자 일부 특히 實學者의 風水 否定論은 자못 날카롭게 핵심을 찌러, 예컨대 茶山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墓地의 耕地 침탈을 우려했고, 楚亨 朴齊家は 地學議에서 風水說 자체의 허망함과 근거없음을 설파하였다<sup>1)</sup>.

近代 개화기의 계몽파들의 風水說 비난은 더욱 혹독하여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山理의 허무함과 폐단, 낭비를 수차 역설하고 그 관습의

\* 全北大學校 師大助教授

1) 李熙德, 1976, "風水地理," 韓國思想의 源泉, 서울, 博英社, pp.182-191.

폐지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다<sup>2)</sup>. 오늘날 시체 일구당 50만원의 장례비용을 계산하여도 年間 1,500億원 상당액의 葬禮費가 소요되는 것<sup>3)</sup>을 감안할 때 당시의 사회관습이나 경제규모로서 風水慣習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 것인가는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上記한 否定論의 대부분이 風水說의 本質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그로 인한 관습, 제도에 집중되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風水說에 대한 긍정적 해석은 地理學, 環境學, 建築學에서 뿐만 아니라 歷史學에서도 여러 편 발견되는데, 道誥의 風水地理說을 政治地理學의 首都의 위치에 비견한 것이라든가<sup>4)</sup>, 國土再計劃案的인 性格<sup>5)</sup>으로 파악한 것, 그리고 地形에 대한 체계적 지식으로서 전통과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 것 등이 그것이다<sup>6)</sup>.

따라서, 地域의 空間秩序를 찾는 地理學이 風水地理說을 연구해야 할 당위성은 상식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地域의 空間秩序 形成은 그 地域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포괄적 의미의 文化와 自然環境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sup>7)</sup>, 우리 나라의 경우 土地나, 地域에 관한 文化現象中 가장 중요한 것이 風水說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人文地理學이 人間에 의하여 점유된 地表를 社會, 經濟의 실체로서 연구하는 것이라면, 중점은 그의 해석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解釋의 정의는 어렵다. 대체로 왜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의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實證的 認識論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필자는 일반화된 因果論的 機械主義를 벗겨야 할 것이라는 Johnston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sup>9)</sup>.

上記한 解釋의 범위에서 風水說을 본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風水地理說 자체에 대한 내용의 정리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因果의 해답을 밝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風水說은 古語의 “天文은 易이니와 地理는 難”이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地中에 流行하는 地氣를 판단해야 하는 難中之難事이기 때문에<sup>10)</sup> 우선은 그 理解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부득이 解釋의 본래 의미를 떠나, 그 사전적 의미대로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임을 밝혀둔다.

다음에 緯學의 解釋이란 中國人의 학문관을 經學과 緯學으로 나누는 中國學의 관례를 따른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 經이란 典, 常과 함께 眞理라는 뜻으로 經學이란 유교의 경전을 護教 護學의으로 연구하는 분야하고, 緯學은 정치, 도덕의 학문인 經學에서 결핍되어 있는 종교적인 성격과 經典의 해석 과정에서의 보조과학적 성격을 다하기 위해서 발달한 학문 분야이다<sup>11)</sup>.

本考에서 구태여 緯學이란 말을 쓴 까닭은 坐向論 해석상 가장 핵심적인 陰陽五行說이 緯學 쪽에서 더 발달하였고 비현실적인 神秘觀이 緯學的인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그렇기 때문에 本考에서의 緯學의 解釋이란 用語는 陰陽五行說의 解釋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 2. 坐向論의 風水地理說上 位置

### (1) 風水說의 構造

風水地理說의 論理構造를 체계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風水說의 本質을 이해하는 것 만큼이

2) 慎鏞厦, 1973, 獨立協會의 社會思想研究, 韓國文化研究所, 서울大文理大, 서울, pp.169-173.

3) 金國道, 1981, 墓地制度에 관한 研究, 社會保障審議委員會, pp.107-111.

4) 李龍範, 1969, “處容說話의 一考察, 唐代 이슬람 商人과 新羅,” 震禮學報, 第32號, pp.34-38.

5) 崔炳憲, 1975, “道誥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第11號, pp.101-146.

6) 朴星來, 1982, 韓國科學史, 韓國放送事業團, 서울, p.106.

7) 崔昌祚, 1980, “圖讖書類上的 土地觀에 대한 地理學의 解釋,” 地理學論叢, 第7號, p.1.

8) 이 점에 관해서는 史學 쪽에서 李丙濂의 “高麗時代의 研究”와 李龍範, 崔炳憲의 前揭論文 참조.

9) Johnston, R.J., 1982, “On the Nature of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New Series, Vol. 7, No. 1,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pp.123-125.

10) 裴宗鎬, 1969, “風水地理略說,” 人文科學, 第二十二輯, 延世大 人文科學研究所, p.139.

11) 黃元九, 1979, 中國思想의 源流, 延世大出版部, 서울, pp.54-83.

12) 이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음. 裴宗鎬, 前揭論文, pp.161-165 참조.

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風水關係의 諸術書나 風水研究關係의 글에서도 공통된 체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術書를 제외한 關係論文에서는 대체로 吉地相占時의 觀點으로 山, 水, 方位의 세 가지를 基本要素로 내세워, 風水地理說의 構成은 이 3者의 組合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3)</sup>.

筆者는 이것을 기초로 하고, 韓國과 中國에서 刊行된 風水書를 정리하여 風水說의 構造體系를 다음과 같은 6가지로 區分하였다.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形局論이 그것이다. 各各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은 다른 論文에서 언급할 예정이지만 坐向論의 風水說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기 위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 看龍法

風水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原理가 可視的 實體로서 表출되는 事象이 山, 즉 風水用語로 龍이며, 그 龍脈의 흐름의 좋고 나쁨을 祖山으로부터 穴場까지 살피는 일을 看龍法이라 한다. 龍 속에는 감추어진 山의 精氣 즉, 地氣가 流行하는 脈이 있어 看龍에서는 龍을 體로, 脈을 用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 龍과 脈은 따라서 외면상으로는 한가지인 것이나 龍을 살펴 脈의 善惡을 알 수 있어도 脈을 보아 龍의 吉凶을 알기는 어렵다. 龍은 形體가 현저한 것이고 脈은 龍의 속에 숨어있는 氣運의 隱微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龍이 있어야만 脈이 있고 脈이 없으면 屍體와 같은 龍이다<sup>14)</sup>.

脈이란 사람의 몸에서도 血의 理致가 나누어 걸로 몸에 行하는 것을 말함이니(脈者以血理之分表行體者而言也)<sup>15)</sup> 風水의 脈도 역시 地中

의 龍의 生氣가 그 이치를 나누어 地表面 부근에 行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사람의 脈을 보아 건강 정도를 진단하는 것처럼 龍脈도 그 형세로써 吉凶을 판단케 되는 것이다.

龍은 祖山이라 불러주는 名山으로부터 시작된 그 山의 본줄기와 곁가지가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風水에서 말하는 祖山은 모두 中國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크게 셋으로 나뉘어, 南龍은 岷山으로부터 일어난 長江과 南海 사이에 끼인 것이고, 中幹은 西嶺에서 일어난 黃河와 長江 사이에 끼인 것이며, 北龍은 崑崙으로부터 출발하여 鴨綠과 黃河 사이에 끼여 이어져 白頭山에서 宗을 일으킨 韓國風水의 祖宗이 되는 龍脈이다. 그래서 山崑崙之子孫이라고도 한다<sup>16)</sup>.

그러나, 실제 龍을 相占할 때에는 崑崙, 白頭로부터의 山脈勢를 順次的으로 모두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으로 大龍임을 거기에 비견시킬 뿐, 地師의 실제 看龍時에는 主山 뒤에 연결된 來龍의 적당한 범위 내에서만 龍의 吉凶을 판단케 된다.

看龍의 方法은 매우 복잡한 편인데, 대체로 正龍과 傍龍, 眞龍과 假龍, 貴龍과, 賤龍, 賓龍과 主龍, 奴龍과 從龍, 老龍과 嫩龍, 長龍과 短龍 등으로 구분하고 그의 龍의 行止, 分劈, 背面, 餘氣 등을 살핀다.

術書에 따라서는 龍의 生, 死, 強, 弱, 順, 逆, 進, 退, 福, 病, 劫, 殺 등 龍勢 十二格으로 吉凶을 판단하기도 한다. 예컨대 “太祖山은 山이 高大하고 石骨은 굵이 지고 후미지며 諸山이 雄長하여 멀리서 보면 우뚝 솟아 빼어나 참으로 불 만한 모양(太祖山 乃龍初起 發脈之山 猶人之有始祖 其山高大 石骨嶙峋 爲諸山雄長 遠望黛秀

13) 崔柄憲, 前揭書, pp.102.

裴宗鎭, 前揭書, pp.149-153.

李熙德, 前揭書, p.197.

朴沈植, 1977. “湖南秘訣考究,” 圓大論文集, 第11輯, 圓光大, pp.139-141.

村山智順, 1931, 서울, “朝鮮의 風水,” p.21.

朴星來, 前揭書, pp.94-107.

崔昌祚, 朴英漢, 1978,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陽基風水를 中心으로—,” 地理學, 7號, 大韓地理學會 pp.21-39.

崔昌祚, 1978, “陰宅風水에 對한 地理學的 解釋,” 地理學論叢, 第5號, pp.91-99.

14) 東谷, 1979, 地理學全書, 서울, 易書普及社, pp.39-40.

15) 楊繼洲, 針灸大成, 卷一, 難經, 이 책은 漢醫方의 집대성임.

16) 琢玉斧, 卷之一, 尋龍歌 및 첨부 地圖.

可觀可愛)이라야 하고, “少祖山은 다시 변화의 모양을 추구하여 뾰족하고 둥글고 각이 지기를 요구함으로써 형상이 수려할 뿐 아니라 요컨대 살아 움직이는 듯 정신이 충만할 것(少祖山 太祖發脈之後 再起之星峰也 一名應星 形與水祖不同 或尖或圓或方 精神充滿 形象秀麗)”을 바란다<sup>17)</sup>.

결국 調和, 均衡 속에서도 變化, 生氣를 아울러 갖춘 모양의 산이吉한 龍으로 간주되는 듯하다.

### (3) 藏風法

明堂에 자리잡은 穴陽을 잡는 것이 목적인 風水에 있어서 明堂 주위의 地形, 地勢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風水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된다. 明堂 주변의 地勢에 관한 風水理論을 통칭하여 藏風法이라고 하며, 결국 藏風法을 통하여 定穴도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실제로 都邑이나 住宅 혹은 陰宅을 相地함에 있어서는 藏風法이 바로 요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葬書에 의하면 “葬者는 生氣에 의지해야 한다(葬者乘生氣)” 하였는데, 또 “陰陽의 氣는 내뿜으면 바람이 되고 오르면 구름이 되고 분노하면 우뢰가 되며 떨어지면 비가 되고 땅속을 흘러 다닐 때는 生氣가 된다(夫陰陽之氣 噓而爲風 升而爲雲 奮而爲雷 降而爲雨 行乎地中 而爲生氣)” 하여 風이나 生氣를 모두 陰陽 二氣로부터 생겨난 同質異體의 것으로 보고 있다.

陰陽二氣라는 것도 同書에 의하면 “원래 하나의 氣가 오르내림에 따라 陰陽이란 이름을 가진 것일 뿐으로 陽이란 陰의 體요 陰은 陽의 用(太初之始 本是一陽之氣 一升一降 分而爲二 二有陰陽之名 然陽爲陰之體 陰爲陽之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氣가 바람을 타면 훌

어져 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는 것이다. 따라서 葬者가 生氣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法術을 바람과 물 즉 風水라 일컫게 되었다(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故謂之風水)”는 것이 葬書의 주장이다<sup>18)</sup>.

그러니까 “風水의 法術은 물을 얻고 바람을 막는 방법을 얻는 데(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sup>19)</sup> 중점을 두게 된다.

바람은 地中에서 발생하는 生氣를 흩어버림으로, 生氣를 포용하고 陰陽의 元氣를 지닌 바람을 잡아 모을 수 있다면 風水가 노리는 목적에 供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藏風의 必要性이 생긴다. 이것은 바람을 막는 것[防風]이 아니고 불어서 흩어지고 사라져가는 바람을 잘 끌어들여 간수하자는[藏風] 의미로 보아야겠지만 실제 相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穴陽 주위를 산이 둘러싸고 그 中央의 凹地에 陰陽二氣의 結合과 生氣의 활동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sup>20)</sup>. 이것을 葬書에서는 “古人聚之使不散 行之使有止”라 표현하였다.

藏風은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四神砂에서 大宗을 이루고 그의 五星, 九曜, 砂星의 官, 鬼, 屍等 術法上으로는 매우 복잡하다. 이 때 砂란 穴 주위의 前後左右에 있는 山(砂者穴之前後左右山也)<sup>21)</sup>을 일컫는 말이다. 道誥이 異人으로부터 風水說을 전수 받을 때 모래로 山川 형세를 설명 받음에 기인한 것이라 하지만, 山川의 형세를 모래(砂)로써 표시하는 방법은 종이에 그리는 지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다<sup>22)</sup>.

따라서, 藏風法은 砂의 吉凶판단법으로 대체되는데 예컨대 “看砂에는 總在眼界間이니 古怪巍峨하면 未善이요, 崎嶇峻險하면 未良이며 倒側歪斜하면 非吉兆요, 祖雄突兀은 總頑凶이다. 破碎稜層은 劫殺이요, 斜飛走去하면 凶殃이다. 尖圓方正이 三吉이요, 秀麗清奇가 好子이다. 明淨

17) 雲菴氏輯, 山龍語類, 十六條, 皆龍身之辨, 地理正宗, 卷十一(臺灣, 端成書局, 1969年 刊, 精校 地理正宗이 出典임).

18) 郭璞, 葬書, 地理正宗, 卷二

19) 郭璞, 葬書.

20) 李熙德, 前揭書, p. 201.

21) 山水圖, 砂法條, 裡里居住 鄭某氏로부터 입수한 筆寫本.

22) 崔柄憲, 前揭書, p. 116.

하던 照福徳하고 端圓하면 降禎祥이다. 圓은 壅腫할 것이요, 尖은 忌讒岩이다. 砂가 吉方에 있으면 多不吉이요, 秀가 凶位에 있으면 福享昌이다. 生砂는 柔軟하야 如弓角이요, 死砂는 硬直하야 似刀槍이다. 貴砂는 尖利圭笏筆이요, 富砂는 圓正庫廚倉이니 聚米辨錢하야 富한다”<sup>23)</sup>는 등이 그것인데, 대부분의 吉凶判斷法이 環境知覺的인 영상을 人事에 類推시킨 比較적 연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 (4) 得水法

風水에서 물[水]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타당한 것이 陰陽論의 解釋方法이 아닌가 한다.

“易에 이르기를 一陰一陽을 道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陽이나 陰 홀로는 生成하지 못하고 陰陽이 相配되어야 造化를 이룰 수 있다. 形勢를 論함에 있어서 山은 陰이요, 水는 陽이다. 무릇 山水가 相配해야 陰陽이 있는 것이 된다. 山과 水는 모두 靜하면 陰이고 動하면 陽이 되기 때문에 결국 山水는 각각 陰陽이 있는 것이다. 陰來하면 陽受해야 하고 陽來하면 陰受해야 하니 龍穴도 相配해야 陰陽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易曰一陰一陽之謂道 蓋孤陽不生 獨陰不成 陰陽相配 乃成造化 故以形勢之論 山居陰 水居陽 是山水相配有陰陽 山靜陰而動陽 水動陽而靜陰 是山水名有陰陽 陰來陽受 陽來陰受 是龍穴相配有陰陽)”<sup>24)</sup>.

즉, 得水는 陰陽의 和合에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葬書에서도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라 함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陰陽二氣에 의한 山水 설명은 明山論에 잘 지적되어 있는데, “무릇, 二氣가 融結해야 山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니 山水를 陰陽이라 일컫는다. 山水가 相補해야 陰陽이 和하고 和해야 沖氣된다. 山水가 聚集해야 陰陽이 會하고 會해야 生氣가 있게 되니 즉 吉하다고 한다. 이 때 山

大하고 水小하면 獨陽, 山小하고 水大하면 獨陰, 山에 起伏이 없으면 孤陰, 水에 沈寂이 없으면 孤陽이라 한다(夫二氣融結爲山爲水 山水者陰陽之謂也 山水相補則爲陰陽和 和則爲沖氣 山水聚集則爲陰陽會 會則爲生氣所謂吉也 其山大水小爲獨陽, 山小水大爲獨陰 山無起伏者爲孤陰 水不沈寂者爲孤陽)<sup>25)</sup>하여 山水가 相補해야 함을 역시 陰陽論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水를 陰陽論에서 벗어나 약간 다르게 해석한 경우도 있다. 물론 山水 해석을 陰陽에서 본다는 본질적 원칙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胡舜申에 山水를 體와 用, 혹은 形體와 血脈으로 對比시킨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즉 “山은 靜物로 陰에 속하고 水는 動物로 陽에 속한다. 그런데 陰은 體常을 道로 하고 陽은 變化를 主로 하기 때문에 吉凶禍福은 水에 더 잘 나타난다(山靜物而屬陰 水動物而屬陽 陰道體常 陽主變化 故吉凶禍福見於水者尤甚)”하였고 “대개 山은 사람의 形體와 같고 水는 사람의 血脈과 같은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 形體의 生長枯榮은 모두 血脈으로 비롯된 것이다. 血脈이 사람의 몸 속을 흘러다님에 있어서 그 度數가 순조로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失節節 되면 그 사람은 병들어 망함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蓋山如人之形體 水如人之血脈 人有形體生長枯榮一資於血脈 血脈周流於一身之間 厥有度數 順而不差則其人必康且強 逆而失節 則其人必病且亡矣 此自然之理)”<sup>26)</sup>하여 得水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있다. 혹은 山水의 관계를 男女關係로 비유하여 더욱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이하기도 한다<sup>27)</sup>.

水의 吉凶判斷法 역시 매우 복잡한데 그 원칙은 “山으로 보아 吉한 方位에서 와서 凶方向으로 흐르는 것(吉方來 凶方去)”<sup>28)</sup>을 좋다고 한다. 좋은 것을 갖고 와서 찌꺼기를 가지간다는 생각인 것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추후 다른 論文에 상술코자 한다.

23) 金榮昭, 1975, 陰宅要訣, 서울, 明文堂, 砂格篇, 砂鉗論.

24) 雪心賦, 辯論篇, 淨陰淨陽辯(臺灣, 竹林書局, 1976年刊, 地理正解雪心賦가出典임).

25) 明山論, 第二, 二氣(서울, 景仁文化社, 1969年刊 영인본, 韓國風水地理叢書가 出典임).

26) 地理新法 胡舜申, 第四, 水論(韓國風水地理叢書가 出典임).

27) 陰宅要訣, 得破篇, 收水論.

28) 地理新法, 胡舜申, 水論.

## (5) 定穴法

穴이란 風水에서 要諦가 되는 장소이다. 穴은 陰宅의 경우 屍身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生氣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陽基의 경우 居住者가 실제 삶의 대부분을 얹혀 살게 되는 곳이다.

朱子는 그의 山陵議狀에서 “소위 定穴의 법이란 針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일정한 穴의 위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터럭 끝 만큼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된다(所謂定穴之法 譬如針灸 自有一定之穴 而不可有毫釐之差)”고 하여 風水의 穴이 人體의 經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였다.

經穴이란 經絡에 존재하는 孔穴이란 뜻으로, 經脈의 出, 注, 過, 行, 入한 곳의 모든 점을 孔穴이라 일컫는데 氣血의 榮衛현상이 반응하는 經絡의 노선 중에서도 특정한 위치에 生理의 또는 病理의 反應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을 말한다.<sup>29)</sup>

鍼灸는 모두 이 孔穴의 부위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孔穴의 부위를 잘 알아 臟腑와 신체의 각 부위에서 일어나는 病源과 經脈孔穴과의 鍼灸관계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 침뜸술의 要訣이 되며<sup>30)</sup> 風水에서 穴을 정하는 定穴法의 중요성 및 어려움도 이로 미루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定穴은 窩, 鉗, 乳, 突의 穴形四格과 그의 變格, 穴星과의 결합 등 대단히 복잡한 편이고, 구체적 定穴방법으로 朝案, 明堂, 分水合水, 天心十道, 水勢, 樂山, 鬼山, 龍虎, 纏護, 向背, 蟬翼, 層甍, 當版 太極, 兩儀, 三勢, 三停, 藏神, 伏殺法 및 忌穴, 怪穴, 巧穴論 등 부지기수이나 本考에서는 생략한다.

## (6) 形局論

이는 최후의 단계로서 주로 地勢의 外觀에 의

하여 그 感應여부를 판단하는 法이다. 때로 物形規局論이라고도 하며 그 穴의 形體와 力量과 氣勢를 어떠한 물체의 형상에 擬制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風水의 本質理論과는 괴리된 내용임이 분명하다. 中國 地家書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며 주로 山水圖, 明山論, 巽坎妙訣 等 風水 實用書에 많이 나타나는 내용으로 예컨대 飛龍昇天, 蓮花浮水, 回龍顧祖, 金鷄抱卵, 玉女開花, 九龍爭珠, 捲簾殿試, 草蛇吐舌, 猛虎出林 等 外形으로 地勢를 直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우주만물 만상은 有理, 有氣하며 有像한 고로, 外形物體에는 그 形象에 相應한 氣象과 氣運이 內在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風水說에 있어 保局形勢와 山穴形體에 따라 이에 所應되는 精氣가 그 땅에 凝聚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形局論의 原理이다<sup>31)</sup>. 이에 대해서는 차후 他論文에서 언급코자 한다.

## (7) 坐向論

山, 水, 方位의 세가지 風水 構成要素中 坐向論은 方位에 관계된 術法이다. 원래 坐向은 穴에서의 위치로 본 方位 즉 穴의 뒤쪽 등진 方位를 坐로 그리고 穴의 正面을 向으로 하여, 예컨대 北쪽에 來龍을 등지고 南쪽에 案山을 바라보는 穴處의 坐向은 子[北]坐, 午[南]向이라 부르는 것이지만, 本考에서는 穴處에서의 坐向뿐만 아니라 山과 水의 흐름 방향 等 方位문제 전반에 관하여 고찰코자 한다.

坐向은 方向의 개념과는 다르다. 한 地點이나 場所는 무수한 方向을 가질 수 있으나 選好性에 의해 결정되는 坐向은 단 하나 뿐이다.

하나의 건축환경이 특정한 坐向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向은 時間性과 상상적 의미가 내포되는 絶對向과 地勢, 視界, 實存性을 가지는 相對向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32)</sup> 風水說에서의 坐向論

29) 기초침구법, 杏林出版社 편집부편, 1982, 서울, pp.29-33.

30) 金斗鍾, 1982, 東洋醫學의 世界, 한국방송사업단, pp.54-63.

31) 辛仇柱, 1982, 明堂學講論, 中卷, pp.195-210.

巽坎妙訣 및 明山論(韓國風水地理叢書), 山水圖(前達), 前揭陰宅要訣, pp.335-361.

前揭 地理學全書 pp.58-59. pp.81-82. pp.285-297. pp.298-301. pp.302-316.

明堂全書(徐氏兄弟著, 韓松溪譯, 1975, 서울, 明文堂) pp.20-22. p.62. p.64. p.116. p.118. p.136 等.

八十八向眞訣(金明濟著, 1971, 서울, 三信書籍) p.71 參照.

32) 張聖浚, 1978,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力에 관한 考察”, 大韓建築學會誌, 22卷, 85號, pp.20-21.

은 복합적인 형태를 취한다.

風水說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陰陽說이다. 陰陽說의 철학적인 것은 道儒의 形以上學에 속하는 것이며, 그 形而下學의 인 것은 春秋戰國時代로부터 내려온 이른바 陰陽家 術數家의 연구결과요, 또 그 目的으로서 말하자면 일종의 自然科學이라 하겠다. 결국 天文 地理를 연구하는 데는 羅經이 필수품이며<sup>33)</sup> 그의 근본되는 것이 坐向論인 만큼 坐向論은 風水의 本質論에 가장 접근된 분야로 보아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 3. 坐向方位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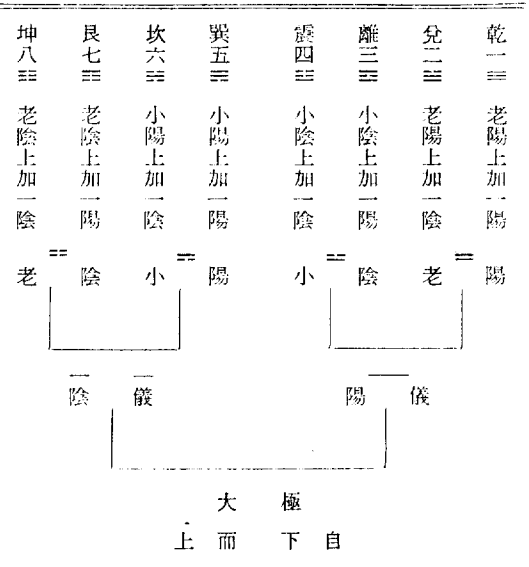
#### (1) 易과 方位

東洋哲學은 易의 原理에 기초한다. 易은 變化의 哲學이다. 易學은 變易하는 세계에 不易하는 眞理를 體系의 表象한 것이다. 宇宙와 人生의 根本實在가 無極, 太極, 兩儀로 하나의 體系를 지어 生成된 것으로 보며, 太極이 無極에서 兩儀는 太極에서 나왔다고 한다. 太極은 陰陽兩儀로 형성되었는데, 陰陽 그 자체는 氣지마는 그 전체의 太極은 理인 것이다. 氣가 비록 千變萬化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가 理의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다<sup>34)</sup>.

太極, 兩儀로부터 四象, 八卦의 生成은 다음 <表 1>과 같고 이 八卦를 두개씩 겹쳐서 六爻의 卦를 만드니 八의 자승이기 때문에 전부가 六十四個의 다른 결합이 생긴다. 이것이 周易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易卦이다<sup>35)</sup>.

易의 風水와 연관지어지는 대목은 繫辭下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第二章<sup>36)</sup>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옛날 包犧氏<sup>37)</sup>가 王으로 天下를 다스릴 때에 우러러 하늘의 象을 보고 굽어 땅의 法을 보며, 새, 짐승의 무늬와 땅의 적당함을 보고 가까이는 사람으로부터

<表 1> 太極生兩儀四象八卦圖(權近, 入學圖說)



더 멀리는 諸物에 이르기까지 보아 그로써 八卦를 처음 만들었다(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興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라든가, “上古에는 사람들이 穴居하며 들에서 살았다. 그 뒤에 聖인이 사람 사는 곳을 棟宇 즉 집채로 만들어 風雨에 대비케 하니 大壯<sup>38)</sup>의 卦에서 취한 것이다(上古 穴居而野處 後聖人 易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風雨 蓋取諸大壯)”, 혹은 “옛날 葬者는 나뭇가지를 두툼히 들어 들고운데 葬하여 封土도 墓樹도 喪期도 없었다. 이를 聖인이 棺槨으로 바꾸니 大過<sup>39)</sup>의 卦이다(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卦不樹 喪期無數 後聖人 易之以棺槨 蓋取諸大過)”하는 등이 그것이다.

물론 風水說에 직접 연결되는 구절은 아니지만 地法, 棟宇, 棺槨을 만든 원리가 易이라고 한 것이니 만큼 근거로서는 충분하다고 본다.

易의 方位 해석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여 종

33) 裴宗鎬, 前掲書, pp. 149-150.

34) 柳正基, 1974, “易의 原理와 實用”, 東洋文化, 第十四, 十五輯, 嶺南大 東洋文化研究所, pp. 156-158.

35) 盧台俊, 1974, 周易, 서울, 弘新文化社, pp. 16-17.

36) 章의 분류는 明文堂刊 周易에 따른 것임.

37) 包犧氏는 伏犧氏를 말함.

38) 大壯은 乾下 震上(☳上 ☰下)의 卦象임.

39) 大過는 巽下 兌上(☴下 ☱上)의 卦象임.

잠을 수 없는 것으로 本章에서는 先天, 後天方位와 河圖, 洛書단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河圖, 洛書와 先後天方位圖는 同質의 것으로 방위 해석상의 큰 차이는 없다.

河圖는 黃河에서 龍馬가 등에 지고 나온 까닭에 붙여진 이름으로 河出圖<sup>40)</sup>라고도 하며 이것을 보고 三皇 中의 하나인 伏羲氏가 진리를 깨달아 八卦를 그어 伏羲八卦方位라 한다.

洛書는 夏의 禹임금이 洪水를 다스릴 때 洛水에서 나온 神龜의 등에 적혀 있었다는 글로, 周文王이 作圖했기 때문에 文王八卦方位가 되고 伏羲의 뒤이기 때문에 後天方位라고도 한다.

따라서, 河圖, 伏羲八卦方位, 先天方位가 同類가 되고 洛書, 文王八卦方位, 後天方位가 同類가 된다. 河圖, 洛書는 다시 數象論의 해석을

가하여 河圖(그림 1)는 北一에 南二, 東三, 西四, 그리고 五는 中央에 배속시켜 生數라 하고 五에 各方位數를 合算하여 다시 배속하니 北六에 南七, 東八에 西九 그리고 中央에 十이 들어가 이것을 成數라 한다.

이에 의한 伏羲의 先天方位는 伏羲八卦次序(그림 2)에 의하여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이 되어 一에서 四까지는 南에서 東北으로 배열하고 五에서 八까지는 西南에서 北으로 배열하면(그림 3)과 같이 된다. 그런데 周易 說卦傳 第三章에서 天地(乾坤) 定位, 山澤(艮兌) 通氣, 雷風(震巽) 相蕩, 水火(坎離) 不相射하여야 八卦가 서로 섞인 것(相錯)이 된다 하였으니 예컨대 南北이 乾坤으로, 東西가 離坎으로 된 것처럼 서로 相對하여 定位, 通氣, 相蕩, 不相射의 조화, 균형을 이룬 셈이다.

洛書(그림 3)는 北에 一, 東에 三, 中央에 五는 河圖와 마찬가지로, 이는 北은 北極星, 東은 日出方位, 中央은 安定의 數로 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인 듯하다. 여기에 四正方의 陽數는 三倍를 해서 左旋하고 四隅方의 陰數는 二倍를 해서 右旋하니, 즉 北一을 3배한 三은 東에, 三을 3배한 九는 南에, 九를 3배한 二十七에서 二十을 뺀 七은 西에 배치하고, 西南의 二를 2배한 四는 東南에, 四를 2배한 八은 東北에, 八을 2배한 十六에서 六은 西北에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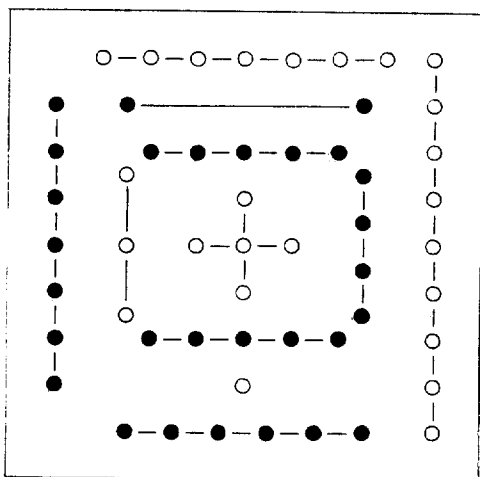


그림 1 河圖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卦八
坤	艮	坎	巽	震	離	兌	乾	象四
太陰		少陽		少陰		太陽		儀四
陰				陽				
太				極				

그림 2 伏羲 八卦次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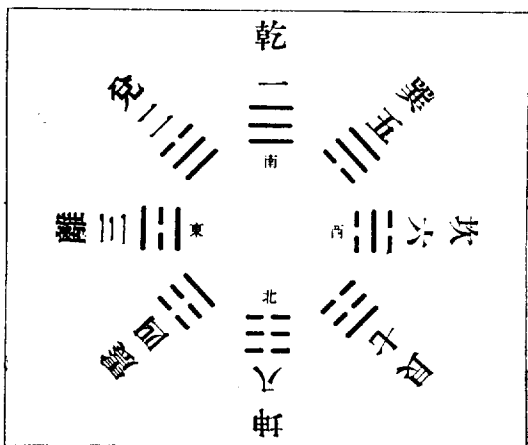


그림 3 伏羲 八卦方位圖

40) 陳正祥, “中國의地名”, 地理, 1982年 7月號에 의하면 古代 中國에서 河란 黃河를 稱하는 것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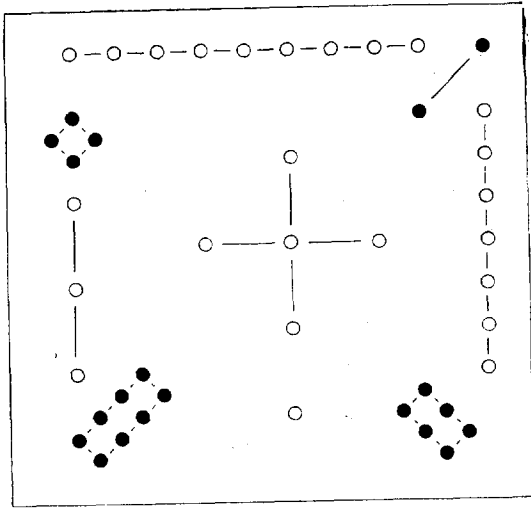


그림 4 洛書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洛書는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어떤 것이나 十五가 되어 결국 魔方陣(Magic Square)이 되었다<sup>41)</sup>.

이것은 周易 說卦傳 第五章 “帝는 出乎震하여 齊乎巽하고 相見乎離하고 致役乎坤하고 說乎兌하고 戰乎乾하고 勞乎坎하고 成言乎艮하니라”라는 귀절을 따라 東에서 右旋하여 〈그림 4〉와 같은 文王의 後天方位圖를 이루게 된다.

筆者는 伏羲와 文王의 八卦方位圖의 根本이 河圖와 洛書를 원시적인 地圖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의심해 본다. 물론 易이 확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八卦方位는 對待法, 配合法, 數象論 등 심오한 東洋哲學의 진수가 가미된 것을, 스스로 理解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깊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最初의 河圖, 洛書는 단순한 居住地의 地勢, 風土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가정해 보는 것이다.

河圖가 伏羲 때라 하지만 전설시대이니 신빙성이 없어, 대체로 新石器末의 黑陶文化가 이루어졌고 殷王朝 후반기의 수도인 殷墟가 있던 오늘의 河南省 安陽을 그곳으로 추정하고, 洛書는 洛水가 黃河의 支流로 洛陽의 西쪽 潼關에서 合流하니 대체로 그 부근으로 추정하여 보면 다음

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sup>42)</sup>.

우선 河圖와 洛書에서 공통적인 것은 위를 南, 아래를 北으로 했다는 점이다. 당시의 居住場所가 日照와 日射가 좋은 南쪽 斜面이었을 것이니 圖書의 기록자는 南向을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바라보는 南쪽이 위로, 등지고 있는 北쪽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또 南쪽은 斜面이 낮아지는 쪽으로 넓게 하늘이 트이니 乾이 되고 北쪽은 山에 막혀 坤 즉 땅으로 인식된다.

河圖의 경우 北西쪽은 太行山脈이 가로막으니 艮 즉 山이고, 南東은 黃河의 低濕地로 兌 즉 澤이 되며, 東쪽은 黃河 流域의 광활한 평야로 찬란히 日出을 맞받아 離 즉 火이고, 西쪽은 太行山脈으로부터의 溪流가 黃河로 물려드는 곳이니 坎 즉 水가 된다. 南西—北東間은 黃河의 河口쪽 流向과 일치되어 南西쪽의 谷風으로 인하여 받은 巽 즉 風이 되고, 北東은 바다로 나가는 河口로 천둥, 번개가 그 方向에서 많이 보여 震 즉 雷가 되어 결국 〈그림 3〉과 같은 伏羲八卦方位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地域은 西部아시아의 The Fertile Crescent 地域과 비슷한 위도로 신석기시대에 있어서 이곳의 年平均氣溫은 오늘날보다 2°C 정도 높았고 1月平均氣溫은 3~5°C 정도 높은 아열대기후에 매우 가까웠다고 한다<sup>43)</sup>. 또한 中國의 地形이 山과 언덕으로 지배되고 있지만 원시시대에는 보다 밀집된 나무와 아열대성 밀림으로 덮여 生活의 대부분이 江流域에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sup>44)</sup> 위의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洛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발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實地形을 본 적이 없고 大縮尺地圖조차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筆者의 의도는 上記한 解釋이 그대로 맞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河圖와 洛書를 초보적인 地勢, 風土說明圖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있다.

이 점은 古代人의 Ideologie形成이 東西洋을 막론하고 모두 原始自然觀에서 비롯되었다는 哲學

41) 柳正基, 前掲書, p.176.

42) 地勢判斷은 1969年版 Britanica Atlas 1:3,000,000에 의하였는데 오히려 깨달, 저서적인 안목을 갖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43) 尹乃鉉, 1982, 中國의 原始時代, 檀大出版部, p.156.

44) 尹乃鉉, 上掲書, p.21.

쪽의 분석도 참고가 된다. 즉 古代 西洋人의 思考樣相의 한 特性으로서 이른바 Physik(自然)를 있는 그대로의 總體的 實體로서 보려는 汎神論의 自然神觀이 社會의 進化發展과 人間性의 發揚에 따라 점차 唯一支配의인 一元化의 完全包括性을 지니려 하였다고 했으며, 이는 東洋古代人의 自然觀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은<sup>45)</sup> 總體的 實體로서의 河圖, 洛書와 完全包括性의 先, 後天八卦方位圖에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도 여겨진다.

## (2) 羅經과 二十四方位

易이 方位의 기본이 됨은 向의 명칭과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니와 坐向이 있게 되는 근본은 羅經 혹은 佩錶이라 일컫는 나침반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2千年前 中國에서 사용되기 시작한<sup>46)</sup> 羅經은 風水說 정복의 최대 무기라 할 정도로 風水關係의 필수물이다. 廖仙精에 의하면 天의 方位인 土圭와 地의 方位인 指南車의 差를 계산하여 方位를 정할 때 午方中心이 아니라 丙午間方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sup>47)</sup> 土圭는 眞北, 指南車는 磁北, 그리고 그 差를 磁偏角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磁針의 方向과 北極星의 方向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偏角의 존재는 일찍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

羅經의 方位 명칭은 上述한 바와 같이 易이 중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체적인 것은 대단히 복잡한 편이다. 즉 天盤, 地盤, 人盤으로 구별하고 다시 六十四爻, 六十甲子를 붙이고 二十八宿를 배열하여 天度數를 거기에 배당시킴으로써 복잡한 分度를 마련한 것이다.

市中에 돌아다니는 羅經 中에는 동심원이 무려 36개인 것도 있다고 하나 흔히 쓰이는 것은 여섯 내지 일곱 개의 동심원을 갖고 있다. 각 동심원은 坐向論의 복잡다기함이 그대로 羅經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實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二十四方位圖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二十四方位는 基本方位의 역할을 할 뿐이고 坐向의 吉凶判斷에는 나머지 모두가 관여됨은 물론이다. 各方位 간격이 15°인 二十四方位는 西洋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22.5° 간격의 16方位에<sup>48)</sup> 비해서 훨씬 상세한 편인데 이는 西洋의 compass가 中國 것을 도입한 것이고 실제 사용기록은 13세기 항해용이 최초이기 때문에<sup>49)</sup>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上記한 바와 같이 二十四方位는 각 지점에서의 全方位를 24等分함으로써 各方位간격 15°씩 一陽始生處인 正北方을 子方으로 左旋하여 癸方, 丑方, 艮方, 寅方, 甲方, 卯方(正東), 乙方, 辰方, 巽方, 巳方, 丙方, 午方(正南), 丁方, 未方, 坤方, 申方, 庚方, 酉方(正西), 辛方, 戌方, 乾方, 亥方, 壬方을 거쳐 子方(正北)으로 돌아오는 형태이다(그림 5).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二十四方位에는 陰陽, 五行, 八卦, 十干, 十二支가 모두 들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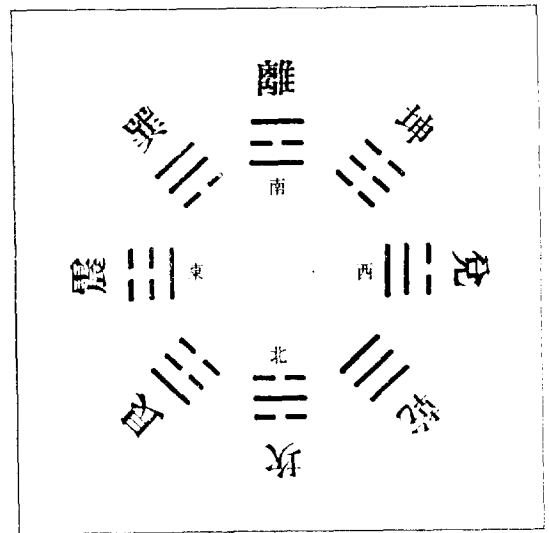


그림 5 文王八卦方位圖

45) 李敦寧, 宋恒龍, 1972, “中國型 Ideologie의 淵源의 形成과 道家思想,” 東洋學, 第二輯, 檀大 東洋學研究所 pp. 205-208.

46) 朴星來, 前掲書, p. 120.

47) 張宗鑑, 前掲書, p. 150.

48) 측량, 항해, 군사에서 사용하는 度分秒나 Grad 단위도 있지만 특수 용도의 경우는 東洋도 度, 分, 秒를 사용했음.

49) 玄炳九, 1973, “저자기,” 原色科學大事典 2, p. 52.

다. 方位名 자체에만은 八卦, 十干, 十二支만 들어 있다. 二十四方位를 포함한 대표적인 羅經의 輪圖版은 다음(그림 7)과 같다.

우선 八卦의 方位 배치를 보면 前述한 文王後天八卦方位圖를 그대로 이용한다. 즉 四正方位는 正東에 震, 正西에 兌, 正南에 離, 正北에 坎을 배치하고 四隅方位는 南東에 巽, 南西에 坤, 北西에 乾, 北東에 艮을 배치하여 八方을 삼았다.

다음 十干은 이것을 五行에 배분, 甲乙은 木, 丙丁은 火, 戊己는 土, 庚辛은 金, 壬癸는 水로 하여 方位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五行은 東에는 木, 西에 金, 南에 火, 北에 水, 그리고 土를 中央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甲乙은 東쪽 부근, 丙丁은 南쪽 부근, 戊己는 中央, 庚辛은 西쪽 부근, 壬癸는 北쪽 부근에 배치된다. 中央은 方位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배분하면 甲은 方位角으로 N75°E(방위각 75°), 乙은 S75°E(105°), 丙은 S15°E(165°), 丁은 S15°W(195°), 庚은 S75°W(255°) 辛은 N75°W(285°), 壬은 N15°W(345°), 癸는 N15°E(15°)에 배치된다(그림 6).

다음 十二支는 子를 正北에 두고 시계방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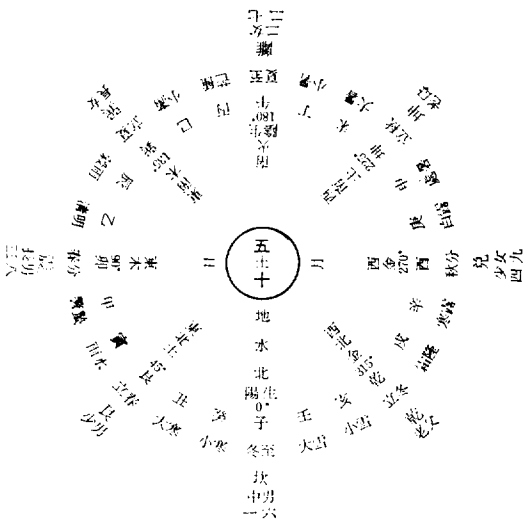


그림 6 二十四方位圖

로 30°간격 배치하면 12개이므로 360°를 채우게 된다. 즉 正北을 子로 하여, 丑은 N30°E(30°), 寅은 N60°E(60°), 卯는 正東쪽, 辰은 S60°E(120°), 巳는 S30°E(150°), 午는 正南쪽, 未는 S30°W(210°), 申은 S60°W(240°), 酉는 正西쪽, 戌은 N60°W(300°), 亥는 N30°W(330°)에 배치된다(그림 6).

그러나, 이렇게 하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탈락되는 것이 생기는데 우선 十干中 戊와 己는 中央이라 제외하고, 八卦中 四正方位는 十二支中 子, 午, 卯, 酉를 우선하여 4개만 남기며, 十二支는 모두 사용하면 二十四方位圖가 완성된다.

### (3) 陰陽·五行·干支 및 節氣와 二十四方位

陰陽과 五行은 宇宙萬象과 심지어 醫方의 形而上學的 설명에 고루 쓰인 東洋의 전통적 사고 방식이다. 風水說에서도 地理的 立地의 超自然的 관련성을 人事에 결부시켜 다룰 때 그 吉凶 판단은 陰陽과 五行에 의하여 설명한다<sup>50)</sup>.

風水 坐向論에서 各方位에 대한 陰陽五行의 配分은 일정하지 않고 說이 매우 구구한 편이다. 극단적으로 어떤 說에서 陰 혹은 水라 했던 方位가 또 다른 說에서는 陽 혹은 金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方位의 陰陽五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선 陰陽은 基本이 되는 것으로 “수많은 地理書 중에서 그 의미함을 개괄하면 陰陽으로 요약 된다(古傳地理千卷義括陰陽兩學間識透陰陽奇妙處 無愧人間行地仙)”<sup>51)</sup>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風水 全般을 陰陽說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山과 水에 각각 陰陽이 있는 것처럼 方位에서도 일률적으로 陰陽을 결정짓는 方法은 나와 있지 않다<sup>52)</sup>. 경우에 따라 달리 陰陽이 결정되며, 例컨대 二十四方位中 子, 壬, 亥, 乾, 戌, 庚, 申, 午, 丙, 己, 辰, 甲, 寅, 艮方等 14개는 陽, 나머지 辛, 酉, 坤, 未, 丁, 巽, 乙,

50) Yang. C.K, 1961, Religion in Chinese Society, Univ. of Calif. Press, pp.263-265.

51) 琢玉斧, 卷之一, 陰陽歌.

52) 山은 本性이 靜이라 陰, 水는 動이라 陽하지만 실체는 山에도 水에도 경우에 따라 각각 陰陽이 있다.

〈表 2〉 五行의 二十四方位配分

五行			二十四方位																					
			子	癸	丑	艮	寅	甲	卯	乙	辰	巽	巳	丙	丁	未	坤	申	庚	酉	辛	戌	乾	亥
正	五	行	水	水	土	土	木	木	木	木	土	木	火	火	火	土	土	金	金	金	土	金	水	水
洪	範	五	水	土	土	木	水	水	木	火	水	木	火	火	火	土	土	金	土	金	水	水	金	火
雙	山	五	水	金	金	火	火	木	木	木	水	金	火	火	木	木	水	水	金	金	火	火	木	水
眞	五	行	水	水	水	水	木	木	木	木	木	木	火	火	火	火	火	金	金	金	金	金	水	水

卯, 丑, 癸 等 10개는 陰에 배속시키는 式이다<sup>53)</sup>.

또 淨陰 淨陽法에 의하면, 壬, 子, 癸, 寅, 甲, 乙, 辰, 午, 坤, 申, 戌, 乾方, 等은 十二陽方, 丑, 艮, 卯, 巽, 巳, 丙, 丁, 未, 庚, 酉, 辛, 亥方 等은 十二陰方으로 나뉘기도 한다.

金, 木, 水, 火, 土로 이루어지는 五行은 그 종류가 우선 많다. 예컨대 正五行, 洪範五行, 雙山五行, 眞五行, 三合五行, 四局五行, 舊墓五行, 淨陰淨陽五行, 納音五行等이 모두 달라서 같은 戌方이 火도 되고 土도 되는 식이다. 이중 가장 많이 쓰이는 正五行, 洪範五行, 雙山五行, 眞五行의 二十四方位 배속은 다음 〈表 2〉와 같다<sup>54)</sup>. 이 중 4個의 五行 배속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子, 卯, 午, 酉方, 즉 東, 西, 南, 北 四正方 뿐이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四正方의 五行 배속은 不變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文王八卦方位의 기본 이념을 답습한 결과로, 震方 즉 東쪽은 木, 兌(西)方은 金, 離(南)方은 火, 坎(北)方은 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各 五行은 용도에 따라 달리 이용되는데, 例컨대 正五行으로는 論來麗하고 洪範五行으로는 論山運한다는 식이지만<sup>55)</sup> 이것 역시 原則일 뿐 일정한 것은 아니다.

다음 干은 幹이라고도 쓰는데 陽으로 보고 태양의 神에 비유하고 支는 枝라고도 쓰며 달의 靈이라고 비유한다. 十干과 十二支는 결합하여 앞에 干뒤에 支를 붙여 사용하며 전체 조합은  ${}_{12}C_1 \times {}_{10}C_1 = 120$ 이 되어 120가지가 되지만 실제

로는 十干에 순서대로 十二支를 붙이기 때문에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개의 干支 즉 六十干支 혹은 六甲이 형성된다. 60干支는 坐向論에서 裁穴, 分金法에 이용되며 〈그림 7〉의 중심에서 다섯번째 중심원상에 표시되어 있다.

干支에 의한 坐向 方位 표시 방법은 曆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東洋曆의 俗信은 모두 干支에서 나온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흔히 年의 干支를 歲次, 月의 干支를 月建, 日의 干支를 日辰이라고 말한다.

歲次란 史記 天官書 索隱에 기록된 대로 歲星인 木星이 十二年만에 하늘을 一周(歲行一次謂之歲星 則十二歲一周天也)함에 十二支를 맞추고 여기에 十干을 삽입시킨 것으로 坐向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月建은 干支를 음력으로 每月에 배당한 것으로 특히 1年이 12個月이고 地支도 12개이므로 1支1月로 고정해서 쓴다. 즉 1月이 寅月, 2卯, 3辰, 4巳, 5午, 6未, 7申, 8酉, 9戌, 10亥, 11子, 12丑이다. 이때 閏月에는 支를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56)</sup>.

이것은 다시 太陽의 黃經과 결부되어 24節氣를 이루고 各 月에 2개씩이 배당되며 二十四向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태양 黃經이 0°인 春分이 기준점이 되어 그 다음은 시계방향으로 15°간격으로 배열되는데 이는 二十四向과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6).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二十四坐向은 태양의 움직임, 따라서 季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二十四節氣와는 1對 1의 對應關係임을 알 수

53) 村山智順, 前掲書, pp.185-186, 그러나 이 책에서 五行의 區分은 三合五行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음.

54) 東谷, 前掲書, pp.177-178.  
辛尙柱, 前掲書, p.158.

55) 金榮昭, 1975, 陰宅要訣, 明文堂, 編集者跋.

56) 李殷晟, 1978, 韓國의 冊曆(上), 電波科學社, pp.155-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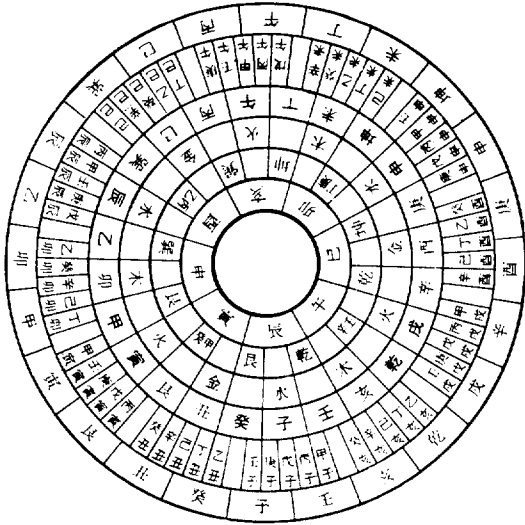


그림 7 羅經 輪圖版

있다. 坐向論에 대한 氣候, 風土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4. 坐向의 吉凶判斷과 그 解釋

##### (1) 坐向吉凶解釋의 基本原理

風水 坐向論에 있어서는 二十四方位의 각각에 고정된 吉凶이 배속되어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 方位別로 原則의 吉凶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事例에 따라 方位上 吉凶이 變轉함을 보이고 있다.

坐向은 그 목적이 吉凶을 알아냄으로써 趨吉避凶하자는 것인 만큼 風水相地術 뿐만 아니라 四柱, 占星, 占卜術 등 동양의 運命術 일반에 널리 쓰이는 術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항상 통용될 수 있는 坐向 吉凶의 틀이 마련된 것이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점은 學이 아닌 術의 성격상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명쾌한 논리로 不變의 原理가 마련되어 있다면 神秘的 解釋을 본령으로 하는

術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坐向方位論은 크게 靜方坐向과 動方坐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聚落, 家屋, 墓所 등 風水와 관계된 坐向吉凶은 그것이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靜方에 해당되고, 인간의 出入 行止와 用兵에 관계된 奇門遁甲術은 움직임의 方位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動方이라 볼 수 있다<sup>57)</sup>.

奇門遁甲術은 六甲을 遁 하여 方位의 利를 얻자는 用兵設陣法에서 나온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中國 軒轅黃帝의 握機經을 기원으로 하여<sup>58)</sup> 太公과 長子房을 거쳐 諸葛亮 時代に 완성되었다고 한다.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는 수시로 方向을 바꾼다. 변전무쌍한 方位의 吉凶을 판단해야 하는 奇門遁甲術은 方位術의 핵심이라<sup>59)</sup> 볼 수 있지만 本考에서는 생략하고 靜方인 風水 坐向論만 언급하기로 한다.

坐向으로부터 感應받을 수 있는 原理는 風水 本質에 속하는 문제이며 筆者의 다른 論文에 게재되었으므로<sup>60)</sup>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요약컨대 同氣感應과 陰陽調和, 五行相生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方位에는 이미 陰陽五行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 方位에서는 그 方位에 따른 陰陽과 五行의 氣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二十四方位는 그 吉凶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穴 주위 山에 따라 吉凶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이란 점이 어려운 것이고 그의 해석을 까다롭게 따르는 이유이다. 즉 어떤 山에서는 좋은 方向이 또다른 山의 입장에서는 凶方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五行의 종류가 많아 문제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실제 感應여부에서 많이 쓰이는 方法은 九星<sup>61)</sup>, 十二宮의 方法일 것이다.

九星과 十二宮은 사람이 죽어서 還生하고 그 후 生旺死絶하는 進環의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十二宮 중에서 셋을 겹쳐 九星으로 만들었다. 따

57) 全泰樹編譯, 1978, 方位學入門, 明文堂, pp.11-17.

58) 李靖(姜舞鶴譯, 1977年, 集文堂刊), 李衛公兵書, 同對上, 諸葛亮兵陣

59) 李奇穆, 1976, 奇學精說, 明文堂, pp.1-7.

60) 崔昌祚, 朴英漢, 1978, “風水에 대한 地理學의 解釋”, 地理學, 第17號, pp.21-39.

61) 원래 九星은 龍의 體를 볼 때 쓰는 五星의 變格이지만, 本考에서는 坐向만을 보기 때문에 五星論上의 九星은 생략함.

라서 九星과 十二宮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 九星의 變化가 무궁하여 全般의 해석은 생략 하거니와<sup>62)</sup> 十二宮은 養, 生(혹은 長生), 沐(혹은 沐浴), 冠(혹은 冠帶), 官(혹은 臨官), 旺(혹은 帝旺), 衰, 病, 死, 墓(혹은 葬), 絕(혹은 胞), 胎이고 九曜는 貪狼, 文曲, 武曲, 巨門, 廉貞, 破軍, 祿存, 左輔, 右弼이나, 左輔와 右弼은 사용하지 않거나 巨門에 붙여 쓴다.

이것을 五行長生法으로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이것은 十干方位에 배속한 것으로, 甲乙은 東, 丙丁은 南, 戊己는 中央이라 제외하고 庚辛은 西, 壬癸는 北이 되어 이중 甲, 丙, 庚, 壬은 陽局 乙丁辛癸는 陰局으로 한 것이다.

또 十二宮 즉 胞胎十二神 定局으로 하면 <表 4>와 같다. 이것은 주로 得破<sup>63)</sup>의 吉凶판단에

<表 3> 五行長生方位

區分	陽局(順)				陰局(逆)			
	甲木	丙火	庚金	壬水	乙木	丁火	辛金	癸水
長生	亥	寅	巳	申	午	酉	子	卯
沐浴	子	卯	午	酉	巳	申	亥	寅
冠帶	丑	辰	未	戌	辰	未	戌	丑
臨官	寅	巳	申	亥	卯	午	酉	子
帝旺	卯	午	酉	子	寅	巳	申	亥
衰	辰	未	戌	丑	辰	未	戌	丑
病	巳	申	亥	寅	子	卯	午	酉
死	午	酉	子	卯	亥	寅	巳	申
墓	未	戌	丑	辰	戌	丑	辰	未
絕	申	亥	寅	巳	酉	子	卯	午
胎	酉	子	卯	午	申	亥	寅	巳
養	戌	丑	辰	未	未	戌	丑	辰

<表 4> 胞胎十二神方位

區分	胞	胎	養	活	浴	帶	冠	旺	衰	病	死	葬
巳酉丑 金局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亥卯未 木局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子辰 水土局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寅午戌 火局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이용되는 것이지만 坐向論 전반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이때 十二宮의 吉凶을 青囊經<sup>64)</sup>에 의해 대폭 간소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즉 養과 生은 九星이 貪狼으로 吉, 沐과 冠은 文曲으로 凶, 官과 旺은 武曲으로 吉, 衰는 巨門으로 吉, 病과 死는 廉貞으로 凶, 墓는 破軍으로 凶, 絶과 胎는 祿存으로 凶이지만 경우에 따라 吉凶은 상반되며 이점은 다음 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十二宮의 경우는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여 胞, 胎는 吉凶不明의 단계이고, 養生은 出生의 축복을 받는 것이며 沐冠은 아직 미지수의 단계로 확실치 않으므로 凶하고 官, 旺, 衰는 人生의 결정기로 吉하며 이후 病, 死, 葬은 凶할 수 밖에 없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十二宮의 吉凶 解釋은 아주 간단한 편이다.

이 十二宮이 九星에 투영되어 人生의 吉凶禍福을 결정케 된다. “貪狼星은 九星의 우두머리 神으로 예로부터 生氣와 生龍이라 일컬어 졌다. 聰明과 文筆과 人口와 官職에 관한 일을 주재하며 또한 財富과 孝와 義와 養生의 일으킴을 관장하기에 十二神의 으뜸으로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吉함을 가히 알 수 있다(貪狼爲九星魁神 古謂之生氣又謂之生龍主聰明文筆人口官職之事亦主財富孝義養生者物之始生故貪狼居之以十二神將 則吉可知)”<sup>65)</sup> 하였으니 크게 보아 吉하다. “文曲星은 水星으로 그 氣가 인간에 내려오면 遊魂이 되며(文曲水星氣降人間爲遊魂)”<sup>66)</sup> “五行의 性은 直이고, 沐과 冠에 부치며 水流가 그 쪽으로 나가면 吉하나 來朝하면 淫慾을 이끌어 不吉하다(五行直沐浴冠水流去則吉來朝淫慾不吉)”<sup>67)</sup> 하였으니 크게 보아 凶하다. 이때 나가면 吉하다는 것은 得水法에서 去水는 凶方이라야 좋다는 원칙에 부합되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武曲星은 富를 주재하여 旺氣와 盛함을 얻는다. 武曲은 본래 庫藏의 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福德, 福龍, 寶曜, 騰雲 등으로 본다(武曲

62) 이에 대해서는 地理青囊經, 1975, 臺中市華成書局刊이 가장 상세할.

63) 明堂 양측으로부터 흘러내리는 水流의 發源處를 得,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을 破 또는 水口라 한다.

64) 地理青囊經, 卷之二, 吉凶의 구체적 내용은 地理新法 胡舜申, 卷上, 第五부터 第十一論까지 참조.

65) 地理新法 胡舜申, 卷上, 貪狼論, 第五.

66) 入地眼全書(1976年 臺灣 竹林書局刊), 龍法, 卷二.

67) 地理陽宅大全, 卷之四, 九星水法吉凶斷例.

主富以得旺氣而盛也 故武曲本庫藏之星世目爲福德福龍目爲寶曜目爲騰雲)<sup>68)</sup> 하였으니 크게 보아吉하다.

“巨門星은 天醫帝主의 이름을 가진 宮으로 左輔星과 右弼星의 도움을 받으며 衰에 居한다(巨門居謂 巨門者名天醫帝主之宮也 輔弼則左右之佐也)”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衰는 얼핏 凶하게 여겨질 지 모르나 깊이 생각하면, “사람이 衰할 때 몸은 비록 殘朽할 지 모르지만 家道가 이루어지고 子孫이 자립하여 드디어 不窮의 실마리를 전케되는(人之衰身雖殘朽然家道道成而子孫立遂傳緒於不窮)<sup>69)</sup> 때이니 크게 보아 吉하다.

“廉貞星은 五鬼, 獨火, 혹은 枉龍이라고 불리며 刑殺과 凶毒한 일을 관장한다. 따라서 五行의 病, 死에 居한다(廉貞號五鬼又號獨火又號枉龍主刑殺凶毒之事故居五行之病死)<sup>70)</sup> 하였으니 크게 보아 凶하다. “破軍星은 絕命, 死龍, 殺曜 등으로 불리우며 刑劫과 惡疾을 관장한다(破軍者一名絕命一名死龍一名殺曜主刑劫惡疾 故居於墓)<sup>71)</sup> 하였으니 크게 보아 凶하다.

“祿存星은 絕體이며 病龍으로 病疾을 주관하니 五行의 胎, 絕에 居한다(祿存爲絕體爲病龍主疾病故居五行之胎絕)<sup>72)</sup> 하였으니 크게 보아 凶하다.

이것이 山, 水, 方位의 變化에 따라 수응 변화하여 정해진 方向에 배치되면 그로써 上述의 이유로 吉凶을 판단케 되는 것이다. 靜方吉凶이지만 山勢와 水流에 따라 方位를 바꾸게 되니 매우 動態인 판단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복잡한 것은 方位의 吉凶判斷이 方位를 잡는 사람의 生年月日時 즉 四柱에도 관계된다는 점이다. 흔히 四柱나 宮수를 볼 때 사용하는 六十干支의 納音五行이 그러하고 本命元辰에 의한 道教의 七星신앙이 그러하다.

丙午, 丁未年生은 天河水, 丙辰, 丁巳年生은 沙中土하는 것이 納音五行이고 本命元辰이란 사

람의 生년에 해당하는 十二支에 本命星을 배당하는 方法으로 子年生은 貪狼星, 丑年, 亥年生은 巨門星, 寅年, 戌年生은 祿存星, 卯年, 酉年生은 文曲星, 午年生은 破軍星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그 사람의 吉凶禍福은 일체 本命星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한다<sup>73)</sup>. 결국 坐向吉凶解釋은 사람과 山과 물과 方位가 陰陽五行의 思考에 의하여 調和, 均衡, 相生의 관계에 있을 때 좋다는 周易의 관념이 基本原理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山水方位의 吉凶解釋

山水方位란 주로 山勢의 走向과 水流의 方向을 말한다. 이 분야 역시 術法답게 諸說이 분분하여 일률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本考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비교적 간단한 몇가지를 標出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 1) 十五度數法

이 法은 靑烏經에서 나왔다고 하며 河圖로 體를, 그리고 洛書로 用을 삼았다고 하는데, 先天之氣는 靜하고 後天之氣는 動하는 바 動함에 法이 있는지라 주로 洛書의 後天八卦 즉 文王八卦 方位를 이용한 것이다<sup>74)</sup>.

前述한 바와 같이 文王八卦方位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의 수는 어느 것이나 十五가 되어 魔方陣이라 하고 十五數를 맞추면 吉하다고 본다. 이때 대각선은 中央을 지나야 하는데 中央에는 方位가 없으므로 제외시키면 가로 2세로 2, 4개의 十五度數가 만들어진다. 첫째, 坎一, 乾六, 艮八하여 十五, 둘째, 離九, 坤二, 巽四하여 十五, 셋째 震三, 艮八, 巽四하여 十五, 넷째 兌七, 坤二, 乾六하여 十五가 된다. 二十四方位에서는 洛書의 坎이 子, 離가 午, 震이 卯, 兌가 酉가 되니 이것을 二十四方位에 의하여 표시하면 첫째, 子—乾—艮, 둘째, 午—坤—巽, 셋째, 卯—艮—巽, 넷째, 酉—乾—坤이

68) 胡舜申, 武曲論, 第七.

69) 胡舜申, 右弼巨門左輔論, 第八.

70) 胡舜申, 廉貞論, 第九.

71) 胡舜申, 破軍論, 第十.

72) 胡舜申, 祿存論, 第十一.

73) 李能和, (1981, 朝鮮道教史, 李種殷譯), 普成文化社刊, pp. 300-301.

74) 東谷, 前揭書, pp. 120-128.



그림 8 山向吉勢一般圖

되고 山의 走向을 일반 방위로 고쳐쓰면 첫째 南北走向—北西南東走向—北東南西走向, 둘째 南北走向—北西南東走向—北東南西走向, 세째 東西走向—北西南東走向—北東南西走向, 네째, 東西走向—北西南東走向—北東南西走向이 되어, 결국 기준 방위를 中心으로 左右各 45°方向에서 새로운 山勢가 漸入되면 좋은 것으로 취급하였다(그림 8).

이것으로 판단컨대 山勢의 흐름은 變化가 있으면서도 절도를 잃지 않으며 지나친 逆勢가 아니고 또 일률화된 順勢도 아닌 調和, 均衡된 상태를 吉勢로 占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十五度數法은 융통성이 있어 形勢가 <그림 8>과 유사하면 方位가 정확하게 十五度數가 아니더라도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山勢走向의 可視的 調和이기 때문이다.

## 2) 向向發微<sup>75)</sup>

이것은 山勢와 水流의 關係를 보인 것인데 전체의 언급은 생략하고 壬山丙向과 子山午向의 경우, 즉 北에서 南쪽을 향한 龍勢가 水向이 어떻게 되었을 때 吉凶을 판단하는가 만을 해석코자 한다. 그의 吉凶판단을 대략 요약하면, 左水가 倒右하여 辛戌方으로 出하면 吉, 右水가 倒左하여 甲方으로 去하면 吉,

巽巳方에 水口면 凶,

乙辰方으로 消水하면 凶,

癸丑方으로 出水하면 凶,

壬子方에 水口면 凶,

乾亥水에 水口면 吉凶相反,

庚酉方에 水口면 凶,

坤申方에 水口면 凶,

艮寅水에 水口면 凶,

丙午方으로 水去하면 吉凶相反이 된다.

이것은 물론 水流의 吉凶을 南北走向의 山勢에만 비견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다른 走向의 山勢에 있어서도 相對方인 山水의 위치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得水의 기본원리가 吉方에서 入하여 凶方으로 去해야, 즉 得은 吉方에 破는 凶方에 있어야 吉한 것임은 前述한 바 있는데, 이것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가져와 나쁘고 더러운 것을 가져간다는 발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向向發微에서 몇가지 原理를 추출해 보면 첫째 물이 들어오는 것은 보이나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음이 좋다고 보는 점, 둘째 水가 山을 直射하듯 들어오는 것은 크게 기피한다는 점, 세째 山水가 直交함을 꺼린다는 점, 네째 水가 山의 走向 方向으로 같이 나갈 때는 몹시 조심하여 不見隱去하지 않는 한 凶하다고 보는 점, 다섯째 山과 水는 順勢보다 逆勢가 됨을 더욱 즐긴다는 점, 그리고 비록 水流가 山의 走向에 逆勢라 할지라도 山을 沖射할 정도로 마주치는 것을 꺼린다는 점 등을 읽을 수 있다.

위에 도출된 原理를 살펴볼 때, 山勢 자체의 흐름에서와는 달리 山水關係는 相補하면서도 變化가 있어야 좋고, 그러나 지나치면 안된다는 의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점은 또 들어오는 물이 바라보여 浸水를 일찍 알고, 나가는 물이 숨듯 竅리를 감추어 더러움을 보지않을 수 있으며, 直射하여 穴場이 浸蝕을 당함을 방지하고, 역시 直交되어 山의 허리가 허물어짐을 보호하면서도 山勢와 水流가 같은 方向을 취함에 있어서는 “午字를 犯하고 丙字上으로 不見隱去해야지 만약 直去하면 蕩然直去家資簿”이니 “大富大貴하고 人丁이 興旺하나 간혹 壽短하고 幼年寡婦를 難免”한다 하여 吉凶을 엇갈리게 함으로써 原理에는 어긋나지만 規局이 광활해짐을 버리지 못하

75) 八十八向真訣(山書)에 의함.



는 현실적인 타당성을 드러내어 상당한 合理性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76)</sup>.

### 3) 坐向吉凶判斷의 根據

위에서 두 가지 경우를 들어 기초적인 吉凶 해석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이것은 坐向吉凶의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무수한 坐向吉凶 判斷法을 정리하는 것도 本考의 분량 밖이거니와 그의 해석은 筆者의 능력 밖이다. 다만 筆者가 소장하고 있는 諸地家書 中の 方位關係 吉凶 判斷法 가운데, 感龍九星圖(撼龍經), 地理正宗卷三, 歸厚錄(卷四), 天元五歌(卷六), 天元九略(卷七), 大元空圖(地理青囊經), 小元空圖(上揭書), 宗廟水法圖(上揭書), 五行論 및 圖式(胡舜申), 向法(入地眼全書, 卷八), 陰宅圖向法(上揭書, 卷九), 山媒法, 反配定穴法, 反配角法, 天德龍法, 四正龍法(以上 地理學全書), 淨陰淨陽 先天山法 後天山法, 坐向入命法, 隔八相生法, 四大局論(以上 明堂全書), 廉看法, 透地八卦六十龍(以上 陰宅要訣), 胎胎法(明堂學講論), 八十八向法(八十八向真訣), 裁穴, 分金, 黃泉煞 八曜水, 元辰煞 等を 살펴 坐向吉凶의 概略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坐向吉凶의 해석에 있어서도 看龍, 定穴 等 風水의 다른 法術과 마찬가지로 陰陽, 五行, 八卦, 十干, 十二支를 원용하고 있음은 같다. 다만 方位의 경우는 九星과 十二宮을 배정하고 있음이 다른 점이나 九星은 藏風法에서 山의 形體를 논할 때 五星의 變體로 이미 등장되어 있기 때문에 十二宮만이 독특한 판단 方法으로 남은 셈이다.

方位는 八卦, 十干, 十二支의 조합에 의하여 二十四山이 결정이 되었고 陰陽과 五行도 종류는 달지만 各 方位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二十四 各 方位의 個別的 吉凶을 알면 쉬울 듯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문제는 있다. 風水에서의 坐向은 흔히 말하는 方位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 地點, 예컨대 穴處에서의 方位는 무수히 존재할 수 있다. 360°의 各 方向이 모두

그 地點의 方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選好性 또는 風水原理에 의하여 配定되는 坐向方位는 단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坐向方位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며, 坐向을 정했다 하더라도 주변 山의 모양, 形勢, 來龍關係, 水의 得, 破方位, 水流, 水勢에 따라서 十二宮과 九星은 달리 배정되기 때문에 좀 과장하자면 어떤 地點도 方位의 吉凶이 同一하게 나타날 수 없는 결과를 빚는다.

즉, 二十四 基本方位에 변함은 없다고 하더라도, 明堂 주변의 상당한 범위 내의 山과 水가 事例마다 十二宮과 九星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方位의 吉凶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穴處를 쓰게 될 사람의 個人的인 四柱, 즉 年, 月, 日, 時의 六十干支가 納音五行 等の 方法으로 관계를 짓게 되니 더욱 복잡해짐을 면할 수 없다.

한마디로 山, 水, 方位, 人이 혼연일체가 되어 趨吉避凶의 形勢를 취해야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山과 水는 各各 그 자체로서 走向이나 流向이 정해 놓은 法度에 맞아야 함은 물론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에서 운위된 모든 原則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좇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설혹 한두 가지의 術法에 通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만다. 當代의 名師인 一耳僧이 그가 칭찬한 李師가 占定한 자리를 譏評한 일<sup>77)</sup>이나, 李淳이 郭璞의 自卜壽藏에서 탄식한 것<sup>78)</sup> 등이 모두 吉凶判斷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준 예라 할 수 있다.

누구 流派의 法術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山, 水, 方位吉凶을 배속했다 하여도 실제 踏山을 하면서 山의 走向과 水의 流向을 잡아내 기란 至難事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것을 주된 走流向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解釋을 가하기 위해서는 各 流派의 吉凶判斷方法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判斷의 근거가 되는 原理만

76) 여기서의 合理性이란 後孫發福의 陰宅感應이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주변 환경의 사람 사는 조건에 비추어 보아 그러하다는 말이다.

77) 裴宗鏞, 前揭書, pp.140-141.

78) 裴宗鏞, 前揭書, pp.148-149.

은 동일하기 때문에 개략적 해석은 가능해진다.

陰陽은 相配되어야 하고 五行은 相生關係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八卦는 卦의 풀이를 근거로 善惡吉凶을 판단하며, 十干은 五行에 배속되므로 五行에 준하여 판단하고 十二支는 支名의 意義에 좇아 그들의 조합으로 최종적 吉凶판단이 가해지게 된다.

十二宮은 人生의 一生過程에 비견하고 九星은 天宮의 배치를 比定하여 고정된 吉凶判斷을 하기 때문에 일단 坐向이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의 판단은 어떤 면에서 기계적이라 볼 수도 있다.

결국 坐向의 吉凶判斷은 可視의 形勢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음의 과제로 미루고 그 原理面만을 살펴보면, 調和, 均衡의 地理觀이 주종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옛사람이 그들의 주위 환경을 生死를 불문하고 인간의 居所라는 實在으로서 吉한가 凶한가를 판별하여야 하였고 그러한 自然論에 힘입어 보다 포괄적이고 一元의인 自然之道를 人間性 發揚과 함께 風水 坐向論으로 정착시켰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坐向吉凶의 根本은 주위 환경 특히 山, 水, 方位라는 風水가 어떠한가, 다시말해서 太陽의 위치, 바람의 方向, 山川形勢가 그들에 맞는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알아내는 方法에 있었다.

相補, 相生, 生氣, 變化, 環抱, 有情, 順勢, 聚講等 조화, 균형의 이미지를 주는 곳이 吉하고 相克, 散髮, 窮盡, 跌斷, 無情, 沖射, 逆勢, 悖逆의 분위기를 일으키면 凶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例外를 곳곳에 분산하여 凶한 곳에도 吉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坐向吉凶은 이와같이 自然秩序를 調和와 均衡으로 파악한 옛사람들의 自然觀이 形而上學的인 原理를 조성 혹은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相地術에 적용함으로써 成立되고 그 原理의 해석에 대한 구구한 異見과 山川을 보는 안목의 서로 다름으로 기인한 諸說이 혼합되어 風水地理說 坐向論으로 정착된 것이라 여겨진다.

## 5. 結 論

風水地理說의 評價를 두고 입장에 따라, 그리

고 접근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논점이 주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歷史學, 民俗學, 哲學, 國文學, 科學史學, 建築學, 環境學 분야에서의 공헌은 風水의 이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당시의 상황으로는 타당했다든가, 生活空間의 해석방법으로는 合理性이 있다는 등 긍정적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

地理學쪽에서는 風水說을 1960年代에 背山臨水, 南斜面, 龍虎砂城에 의한 規局의 環抱性等 주로 聚落立地 혹은 風土說明 정도로 하여 그쳐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風水의 思考方式일 뿐 風水說 그 자체는 아니다. 北半球 中緯度地方의 聚落立地로서 옛사람들은 東西를 불문하고 風水的 觀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風水地理說이란 복잡미묘하고 변화무쌍한 形而上的 術法을 만들어 地表上에 투영한 것은 우리의 특징적인 현상일 것이기 때문에 지리학에서의 접근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坐向論이란 風水術法의 특수 분야에서 시도하여 調和, 均衡의 自然觀이라는 결론을 추출하여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坐向 해석은 易과 陰陽五行을 自然之道로서 여하히 地表현상과 연결시키느냐에 주어져야 하며, 또 하나 地表현상이라는 可視的 實體를 어떻게 吉凶面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調和와 均衡의 自然觀을 부연 설명하면 은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결함이 없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주위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다. 角이 지지 않는 方位와 유장한 山의 흐름과 찌르듯 달려들지 않는 물길에 둘러싸인 規局, 그러면서도 단조롭지 않도록 山水 배열에 變化의 원리를 적용시킨 風水 坐向論은 결국 옛사람들이 삶의 거처로서든 永眠의 자리로서든 길이 있고 싶어 했던 곳을 일반화시킨 논리일 것이다. 均衡된 自然과 調和된 心性이 결부되면 그곳에 居住하는 사람이나 그곳에 祖先의 屍身을 모시고 자주 찾는 사람에게도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易術과 결부되어 吉凶判斷法으로 정착된 것이라 판단된다.

# A Study on Telling Fortune about Bearings

Chang-Jo Choi\*

## Summary

Poong-Soo (Fengsui, 風水) is often compared with Geomancy, but they are in fact different from each other. Literally Poong-Soo means wind and water, but in a strict sense its connotations are very profound.

Geomancy is the western art of prognostication. The skill of the specialist in these prognostications consists of correctly observing and interpreting certain phenomena. For example geomancy interprets the cracks that appear in dried mud; pyromancy, the shapes discovered in flames; lithomancy, the formation of rocks and stones; hydromancy, the flow of water or the form of waves.

But Poong-Soo is not an art of prognostication. Koreans selected building sites and burial grounds with a certain geomancial point of view. In this case the geomancial view point meant the illogical technique of selecting certain sites. However, It has its own empirical formal logic.

Poong-Soo originated in ancient times, but it prevailed at about one thousand, one hundred years ago when theoretical Poong-Soo was introduced into Korea from China.

Poong-Soo is divided into two kinds. One is the Eum-Taek Pong-Soo (陰宅風水), the selection of burial grounds and other is Yang-Taek Poong-Soo, (陽宅風水), the selection of building sites and settlement locations

The purpose of Poong-Soo is to look for human felicity with the help of Ji-Ki (地氣), a composite ground force. It is thought that Ji-Ki gives good luck to people who select favourable sites for their residences, settlements, or ancestor's burial grounds.

Ancient people thought about grounds as a sort of Mother Earth. They gained almost all of their necessities of life from the ground. When their locations were good enough, their productivity would rise, so they regarded the influences of the grounds as a decisive factor in their lives. Magic methods of ground selection would be added and they be modified. Theoretical Poong-Soo was a result of these processes.

Poong-Soo consists of three basic elements, mountain ranges, rivers and bearings. Seeking for Dragons (看龍法 Kan-Ryong-Bub), Screening from the wind (藏風法 Jang-Poong-Bub), Gaining the water (得水法 Deuk-Soo-Bub), and Selecting the bearings (坐向論 Jwa-Hyang-Ron) are its formations. In this sense dragons mean the mountain ranges.

The author limited his considerations only to the technique of selecting the bearings, Jwa-Hyang-Ron. Its theoretical authority stems from the I-Ching (易經), Book of Changes. I-Ching, also known as Chou-I (周易), consists of an original corpus dating from probably the beginning of the Chou dynasty, and used for divination. It also includes several appendices, possibly written by Confucian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Han dynasty.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26, pp.90-109, 1982

\*Assistant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Jwa-Hyang-Ron, Poong-Soo-Sa(風水師), a Korean geomancist divides the bearings into twenty-four directions. Each direction has a certain meaning, sometimes good and sometimes evil. Mountain ranges, rivers and directions all have their own fortune.

The source of fortune is supported by Yin(陰) and Yang(陽), Wu-Hsing(Five Elements, 五行), T-ien-Kan(Heavenly Stems 天干), and Ti-Chih(Earthly Branches, 地支).

Yin is the female principle of darkness, cold, moisture, quiet, etc., and Yang the male principle of light, warmth, dryness, movement, etc., their interacting activities are supposed to produce the natural phenomena of the universe.

The Wu-Hsing, which are earth, wood, metal, fire and water, are the corporeal essences of the Five constant Virtues. They we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mutual interaction between the way of nature and the affairs of man.

The ten Heavenly-Stems and twelve Earthly-Branches are the combinations of cyclical signs in pairs, beginning with chia(甲)-tzu(子) (1 and 1 of each series), and continuing until each

stem has been combined with each branch, yielding a total of sixty different combinations before chia-tzu, the first pair, reappears.

Among twenty-four directions, the author exemplifies four, east, west, north and south. The correlates of the east are the stars. Its season is spring. Its influence is the wind. Wind produces wood and bone. Its characteristics are those of a time of joyousness, plenty and regular growth. The duties to be performed are to put in order and cleanse the places of the spirits. Thereupon the soft wind and sweet rains will come, the common people will live to a great age, and the various animals will flourish.

This is the virtue of the stars. Along the same lines, the south is the virtue of the sun, the west are the stars of zodiac in autumn, and the north is the moon in winter.

The author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Jwa-Hyang-Ron of Poong-Soo is an appropriate expression for a dwelling environment and also thinks that its connotations are very profound from an environmental viewpoint.